

Style 조선일보

MARCH 2024
vol. 265



Frivole collection
Ring 8 flowers,
rose and white gold, diamo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DIOR

DIOR CHIFFRE ROUGE
38MM, AUTOMATIC, BLACK ULTRAMATTE STEEL,
PINK GOLD, BLACK DIAM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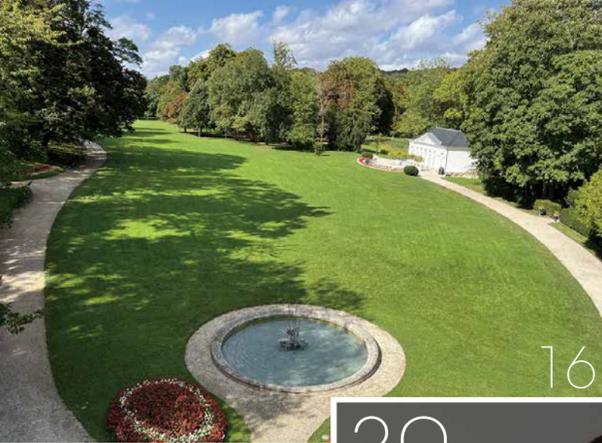
CELINE



CHANEL.COM | CUSTOMER CARE CENTER 800-805-9628

CHANEL

THE PREMIÈRE WATCH
ÉDITION ORIGINALE



16



18

조선일보
Style
MARCH 2024

Van Cleef & Arpels

매년 봄마다 반클리프 아펠은 자연이 피아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올해는 프리클 주얼리 컬렉션에서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5개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8개 플라워 모티브의 프리클 링은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를 조화롭게 매치해 탄생시킨 작품이다. 각기 다른 높이로 성세하게 배치한 꽃잎 모티브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듯 강렬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문의 1877-4128

30



14

- 16 **IN SEARCH OF A MASTER'S TRACES**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파리가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위세를 떨쳤던, 그래서 후대에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로 불리게 된 시기. 그 시절을 풍미한 예술가이자 후원자, 그리고 나눔을 실천했던 진정한 멋쟁이 파리지앵 구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 18 **A STROLL IN PARIS** 매종 카유보트를 방문한 후 다시금 마루 깎는 사람들(The Floor Scrapers)(1875)을 보고 싶어 파리를 떠나는 날 아침 오르세 미술관을 찾았다. 파리 산책 일정은 그렇게 일찍 시작됐다.
- 20 **PERFECT HARMONY**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만나 아름다운 마음을 선사하는 콤비네이션 워치.
- 21 **MY SWEET HEART** 달콤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스러운 하트 모티브 팬던트.
- 22 **2024 S/S TREND REPORT FOR WOMEN & MEN** 파일럿과 농부가 입을 법한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룩을 비롯해 모범생 룩인 일명 깃시크 룩, 여성 쇼에서 두각을 드러낸 남성 테일러링 디테일과 이와 반대로 남성 쇼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유려한 실루엣까지, 2024 S/S 트렌드 하이라이트.
- 24 **ANOTHER NEW ICONIC** 셀린노에서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트리오피 백의 뒤를 이을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인다. 바로 릴리 백, 빅투아르 백, 그리고 레나가 그 주인공. 톰보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팝 펑크 문화의 다채로운 재해석을 보여준 이번 컬렉션의 신제품인 만큼, 젊고 대담하며 신선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
- 28 **THE QUEEN'S FLOWER** 이탈리아 장인 정성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노하우로 탄생한 디아미니 마르케리타 컬렉션과 배우 이상경의 아름다운 조우.
- 29 **ULTIMATE TIME** 혁신성에 뿌리를 둔 워치메이킹 하우스의 위엄을 보여주는 위블로의 뉴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4. 선구적인 기술력을 감상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시간을 선사하다.
- 30 **POWER OF SPRING** 새로운 시즌,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2024 봄의 뉴 키크.
- 39 **FOR MY LOVE** 사랑하는 이를 위한 사철의 특별한 기프트 제안, 코코 마드모아젤.
- 40 **PRISM POWER** 완성도 높은 아름다운 피부는 광채와 윤기로 결정된다. 스킨-케어링 효과로 메이크업하는 내내 피부 결뿐 아니라 속까지 수분과 윤광을 선사해줄 단 하나의 자항시 부터 쿠션과 파운데이션.
- 42 **EDITOR'S PICK** 피부 고민은 덜어주고 싱그러움으로 채워줄 이달의 뷰티템.

Style 조선일보

Issue.265 March 2024

대표 | 방정오 cj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노연경 분해재판 | 리은 인혜 | 티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33-5330 광고 문의 02-73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9-10일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OMELLATO.COM 02 3143 9486



POMELLATO TOGETHER COLLECTION

Pomellato
 MILANO 1967



그대의 시간

21세기 워치메이킹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J12 워치 컬라버 12.1이 사철 워치에서 최초로 18K 옐로 골드를 사용해 새로이 선보인다. 기존의 견고한 블랙 및 화이트 세라믹 소재는 그대로 사용하고 스크루-다운 크라운과 베젤, 크라운, 다이얼 등 섬세한 부분까지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재해석해 미스 마치 노히어로 보여준다. 어느 각도에서든 은은하게 빛나며 고급스러운 감성을 전하는 것 역시 장점. 기존의 J12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크로노미터 공식인증 기관 COSC의 인증을 받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라버 12.1로 작동하며,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각 2천3백70만원대.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SCENTS IN BLOOM

자랑시 퍼퓸의 대명사이자 아이콘이었던 제미니 에디션이 오 드 퍼퓸이 2020년 론칭 이래 4년 만에 에디션이 오 드 퍼퓸 베리 플로럴로 재탄생한다. 기존 에디션의 생동감 넘치는 향에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향을 더했다. 마스터 조향사 트리오라 불리는 파니 발(Fanny Bal), 앤 필리피(Anne Filipo), 도미니크 로피온(Dominique Ropion)에 카롤린 뒤메(Caroline Dumer)가 합류해 완성한 베리 플로럴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 있는 새로운 플로럴 향이 가장 큰 특징. 여기에 로즈 앵슬루트와 솔티 화이트 플라워 부케의 만남으로 플로럴 향의 새로운 향미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보틀 디자인도 주목할 만하다. 매끄러운 실루엣의 핑크 필 파카에 자랑시의 아이콘인 프라임을 활용해 완성했으며, 강렬하고 밝은 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80ml 21만6천원대. 문의 080-801-9500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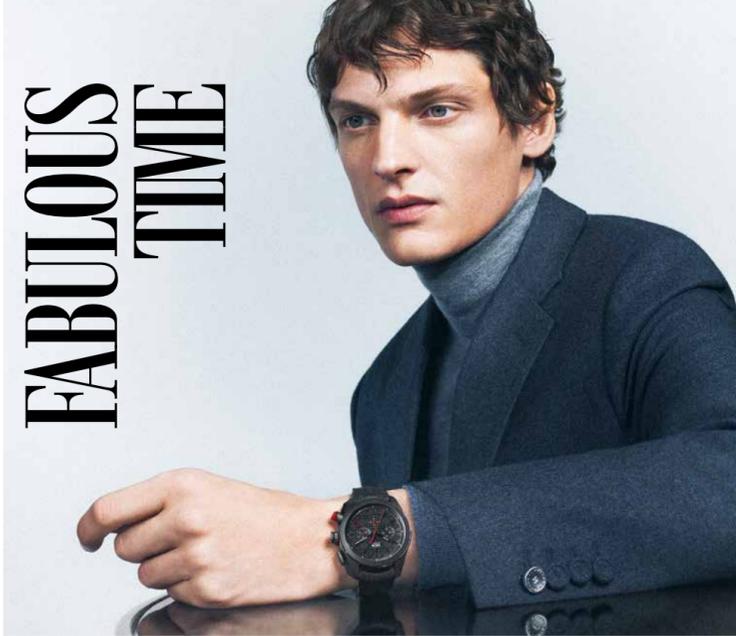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GOLDEN HOUR

혁신적인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궁극적인 기술을 담아낸 우블로이의 방방 원클릭 킹골드 다이아몬드를 소개한다. 원클릭이라는 이름처럼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스트랩을 탈착해 교체할 수 있는 실용성이 돋보이는 워치로 사탄으로 마감한 33mm 크기의 폴리스티드 18K 킹골드 소재 케이스와 매트 블랙 다이얼이 조화를 이뤄 세련된 맛을 선사한다. 베젤에는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맛을 배가했다.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3천만원대. 문의 02-3438-6031



FABULOUS TIME



디올 타임피스의 대표 남성 워치 중 하나인 쉬프르 루즈(Chiffre Rouge) 컬렉션이 출시 후 20년이 지난 오늘날 색다른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디올 하우스의 아이콘이었던 코드인 쿠티르의 미학을 담아 특별한 매력을 지니는 이 타임피스는 디올의 영원한 심벌로 손꼽히는 까누슈 리인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무슈 디올이 생명의 칼라버 칭찬 특별한 레드 칼라를 시그니처 포인트로 더해 상징성을 부여했다. 오토매틱 메카니즘을 갖춰 크로노그래프부터 투리비움까지 다양한 칼라버로 폭넓은 선택권을 자랑한다. 38mm와 41mm,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어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착용 가능하다. 문의 02-3280-0104



우아함의 정수

올해 반클리프 아펠에서 공개한 프리블(Frivole)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은 7개의 화이트 골드 플라워 모티브로 완성해 우아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꽃잎을 활짝 피워낸 디자인이 총 3백 개의 다이아몬드와 어우러져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을 완성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춰 선별한 젤스톤이 조화를 이루며 피부 위에서 강렬한 광채를 선사한다. 특히 비대칭으로 구현한 디자인과 기울어진 곡선형 하트 형태의 얇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의 1877-4128



NEW FOR YOU

타임리스한 아메리칸 클래식을 전하는 알프 로렌에서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에 위치한 하우스의 여성 플래그십 스토어를 모티브로 한 RL 888 컬렉션의 새로운 톱 핸들 백을 선보였다. 스토어의 견고한 실루엣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으며, 파우더 블루 칼라와 베이지 핑크 칼라인 모브 등 다가오는 봄에 어울리는 파스텔 톤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퍼넬레 장인이 최고급 이탈리아 산 박스 카프 스킨 소재의 총 36개 피스로 보디를 완성하고, 클로저 장식인 시그니처 'RL' 모노그램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편안한 그린감을 선사하는 상단 핸들과 2개의 내부 수납공간 및 폴리스티드 처리한 2개의 카퍼, 그리고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구성해 크로스보디 및 숄더백으로 다채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문의 02-3467-6560

FABIANA

OKAY KAYA WEARING SPRING SUMMER 2024 CAPTURED BY DREW VICKERS

FILIPPI



for her
Selection

클래식한 디자인과 리블리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스포링 무드 골프 웨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on sang

패이톤트 그래픽인트 키트 스카에
라이트 메탈 소재로 포인트를
준 샤넬 22 미니 핸드백.
20X19X8cm, 가격 미정 샤넬.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제작된 카브리야
레디 쿼터 글러브의 견본에 R.LX 골프.

눈길을 사로잡는 핑크 다테일로 강렬한
문양기를 배가하는 GSS 우븐 하이브리드
스탠드 백 99만원 파우티.

라그란 (베이지 스페셜) 테이퍼를 신는다는 용즈리
블루투스 헤드셋 (2020년 12월 15일) 인텔 인텔

해리스코프 01020202
프랑스의 디자이너 로제트 로제트
Wakidol 로제트 로제트
1.8만 원 이상

피레티는
총 1,489개의 디자인이 들어 있는 3pcs 300g의
가격 미정 파우티

특히 뛰어난 질러감의 미 스피드온서 3pcs 300g의
가격 미정 파우티

스포츠하고 도시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이서티아트 소재의 그림
마크 신글라스 가격 미정
입력신더 맥킨.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레디-소재의 H630 인텔러티
가격 미정 호간.

패이 킷이머틴 2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2개를
세팅한 조세핀 룬드 디그레드
아바링 7백만원에 쇼에.

신식스러운 실루엣을
선사하는 컬러 티핑
스커트 169만원
리코스테.

영한 감성을 전하는 디자이너 특장인 트래블 로고 포인트 니트 41만원 원 일본골프.

에센셜 인트워프 031-5170-1355 샤넬 080-805-9628 R.LX골프 080-566-1199
파우티 1533-1631 디올 02-3280-0104 가브리엘 1877-4326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혼아골프 02-2140-1800 포멀리토 02-3143-9486 테일러메이드 02-6410-8050 빈블리프 아펠 1877-4128
호간 02-3479-1593 일본골프 031-8060-0290 리코스테 02-979-5930 쇼에 02-3442-3359



DUAL REPAIR LIFT CREAM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클리니컬 듀얼 액션 리페어 & 리프트

피부 특수 케어 기술 최초² 융합
고강도 케어 후 피부 탄력 +213%³, 손상 장벽 회복 +202%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은 피부 특수 케어용 고효능 성분과 기술을 최초² 융합한 고성능 안티에이징 솔루션입니다.
AP 독자 개발 성분 PDRN과 EXOYNE의 혁신적 시너지로 데일리 사용만으로도 특수 케어급 리페어 & 리프팅 효능을 선사하며,
고강도 케어 후 사용 시 일반 크림 대비 2배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ap-beauty.com

1) 인체 적용 시험으로 피부를 확인했음을 의미 2) 자사 최초 3) 자사 테스트 아랍 결과



골프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는 박빙 유니크 골프 스카이 블루 카본 4잔인원대 워블로.

스포츠한 감성과 세련된 멋을 부여하는 선글라스 56만5천원 프라다 리네로사 by 에실로로스타카.

모스텔리 카미를 세 줄이나 스웨터 159만5천원 에일리아노 로렌.

친환경 방수 가죽 소재로 재주해 가능성이 돋보이는 트래비스 65만원 파우티.

시원한 느낌을 전하는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특징인 라바사틀 시아쉬리 버킷햇 11만9천원 폴로 힐프 로렌.

심플한 디자인이 심플함도 조화를 이룬 925 소재로 재탄생 다들 톨 밴드 65만원 스타본 헬스터.

블랙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련한 포스텐 브레이슬릿 4백64천원 프라다.

아이코닉한 코듀라 원단으로 제작한 프리미엄 카모 캐디백, 24X90cm, 1백59천원 마크엔로나.

스페셜리스트 8월 8일 에일리아노 로렌

for him Selection

필드 위 자신감과 신사다운 에티튜드를 결정하는 스타일리시한 골프 웨어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베를 뿔 스키프의 부드러운 느낌을 전하는 179000원대 7월 20일 에일리아노 로렌.

클래시컬 디자인의 폴 아가밍 1/4 세 배스톤 3만8천원, 3호스 그린 클러킹이 스웨터 139만8천원 (모자 포함) 폴로 힐프 로렌.

해바라기 컬러의 브라운 패턴 4호 10만9천원 에일리아노 로렌.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제작된 편안함을 선사하는 가터밴드 1개 21천원, 핏트 골프브 진원대 10.2천원, 폴로 힐프 로렌.

스피드 스코어 기록을 위한 30만3천원대 에일리아노 로렌.

필드나 일상에서 목에 감각적인 포인트가 되어줄 코디트 캔버스 소재 캐시 매신저, 24X24X8cm, 3백71천원 루이비통.

합성 피아버 소재를 신었을 때 가벼운 느낌을 전하는 스페셜 2호 11만9천원대 사제시.

워블로 02-540-1356 에실로로스타카 02-501-4436
 미중기츠네 골프 02-3479-1913 파우티 1533-1631 폴로 힐프 로렌 02-6004-0220
 스타본 헬스터 02-2231-1592 프라다 02-514-3721 에일리아노 로렌 02-3218-7400
 테일라메이어드 02-6410-8050 아메리칸골프 1833-2250 루이비통 02-3432-1854
 마크엔로나 02-2015-6000 자형시 1551-2201 몽블랑 1877-5408 RIX골프 080-566-1199



LANVIN
BLANC

귀스타브 카유보트의 영혼이 깃든 예르(Yerres) 탐방

in Search of a Master's Traces

어쩌다 보니 노르망디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보낸 시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프랑스 작가 로제 그르니에는 세상을 뜨기 2년 전 마지막으로 남긴 책에서 '그러나 나의 도시는 파리라고 강조하면서 애정 담은 회고적 에세이를 써 내려갔다. "내가 느끼기에 진짜 파리지엥은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파리에서 사는 것이 일종의 정복이다"라는 서두의 대목을 맞닥뜨리니 이 도시에서 예술혼을 치열히 불태웠을 수많은 이름이 스쳐 간다. 이를 테면 헤밍웨이, 피카소, 무하, 브랑쿠시 같은. 개인적으로 파리지엥의 삶을 열렬히 꿈꾼 적은 없었지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 후보로 주저없이 손뼉을 시공간 배경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파리지엥이다. 파리가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위세를 떨쳤던, 그래서 후대에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로 불리게 된 시기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재능과 에너지 넘치는 이들을 그저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지만, 더러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인물도 있다. 예술가이자 후원자, 그리고 나눔을 실천했던 진정한 멋쟁이 파리지엥 귀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는 후자에 해당한다.

미술과 패션, 음악, 문학 등의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재동능과 풍부하게 꽃피운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 이 문화 예술적 황금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폭넓게는 <예술가들의 파리> 3부작에서 다뤘듯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고, 제2제정이 몰락하고,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의 봉기로 차치 정부가 잠시 들어섰다가 새 정부 체제하에 전반적으로 파리가 '재건'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상징적인 도시 풍경의 골격을 갖춘 시기를 그 흥미로운 움직임이 짙은 여명으로 볼 수 있다(1871~1900). 만국박람회(월드 엑스포)를 위해 설계한 에펠탑을 비롯해 그랑 팔레, 오르세 기차역(훗날 미술관), 팔레 가르니에 등이 등장하고 다양한 인제가 모여들면서 '빛의 도시' 파리는 그야말로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과감하게 전통과 단절한 젊은 화가들이 만든 '무명미술가협회'에서 역사적인 전시회(1874년)를 열었고, 모네의 걸작 '인상', 해돋이를 빔대어 조롱한 한 비평가의 표현이 사조의 이름이 되어버린 '인상주의'도 이 시절의 소산이다. 물론 빛의 지평에는 극심한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었고, 점차 퇴폐와 향락이 판을 치고 세기말로 가면서는 불안과 절망에서 비롯된 냉소와 비판론이 팽배했지만 말이다(이 역시 예술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파리 근교에서 즐기는 인상주의의 또 다른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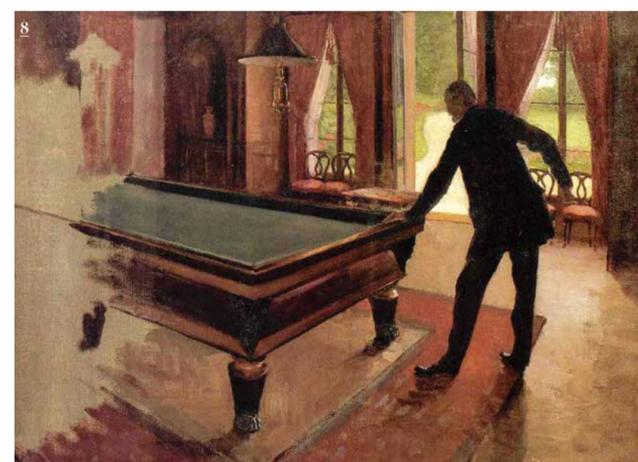
● 파리는 도시와는 꽤 인연이 있는 편이다. 흔히 '역마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만한 필자의 인생 여정에서 여행이나 출장의 목적지나 경유지로 가장 많이 들르지 않았을까 싶은 도시가 파리지엥 때문이다. 런던에서 유학하던 시절, 우연히 유유자적하게 한 달 살기를 해본 적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동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접하다 보니 변화하는 콘텐츠 덕분에 숨가쁠 정도로 바빠 발품을 팔고 다니느라 교외 나들이는 별로 시도하지 못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가장 최근의 파리 일정에서는 근교로 반나절 여행을 떠나봤다. 인상주의 화가 귀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1848~1894)의 휴식처이자 주요 작품의 배경이 되어준 저택과 정원 부지가 있는 예르(Yerres). 파리 남동쪽에 있는 교외의 작은 도시로도 심에서 자동차로 30~40분이면 갈 수 있고, 기차(RER D선)로도 멀지 않다(가르 드 라옹에서 예르까지 네 정거장). 기차역에서 내려 조금만 걸으면 절로 숨통이 확 트이는 넓은 부지에 시원하게 펼쳐진 정원과 더불어 여유롭게 들어선 건물들이 시야를 사로잡는다. 예르의 작은 보석 '메종 카유보트' 부지다.



1 파리 남동쪽 외곽에 있는 도시 예르(Yerres)에 자리한 메종 카유보트(Maison Caillebotte) 부지에 있는 11ha 규모의 넓은 공원. 19세기 인상주의 화가이자 문화 예술 애호가, 후원자, 수집가, 일적이었던 귀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집안 사람들이 여름 별장으로 쓴 저택과 정원, 탁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봉부터 가을까지는 기획전도 여는 시영 문화 공간이다. 20년간의 수리와 복원 과정을 거쳐 2017년 다시 문을 열었다. 2 The park of The Maison Caillebotte in Yerres (le parc de la propriété Caillebotte à Yerres), 1875, oil on canvas, 65 x 92cm, Private collection © brame & lorenceau Éditions, Paris. 3 카유보트의 그림에 등장한 했던 오렌지차. 무 온상인 오랑주리(Orangerie). 기획전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 Sébastien Erras 4 카유보트의 그림 '화초밭에 물 주' (Les Jardiniers), 5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작품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한 메종 카유보트 부지 내 탁발. 6 예르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가로운 정취를 보여주는 카유보트의 작품 '베르세르의 뱃놀이(Périssoires sur Yerres)', © collection de M. et Mme Paul Mellon, National Gallery of Art 7 및 낙농장을 개조한 전시 공간,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관공)과 큰 세장. 8 메종 카유보트 안에 있는 당구실을 담았던 작품 '당구(Le Billard)', © comitè Caillebotte, collection particulière 9 메종 카유보트 안에 있는 실제 당구실 모습. © Sébastien Erras. 10 카유보트 집안 사람들이 20년간 소유했던 메종 카유보트 외관. 정원 생활을 즐긴 19세기 부르주아의 일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이트 투어와 미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다. 11 카유보트 카유보트의 미술 카유보트가 신부였던 장남 알프레드를 위해 지은 예배당. * 홈페이지 maisoncaillebotte.fr * 1~4, 6~9 이미지 제공: 메종 카유보트 * 5, 10, 11 Photo by 고성현



●● 파리 태생인 카유보트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예르의 저택에서 여름을 보내며 추억을 쌓았고, 실제로 이곳에서 80점 넘는 그림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녹음 짙은 숲을 배경으로 한 강둑에서 빛물이 수면 위에 떨어지며 빛어내는 동심원의 파장이 인상적인 그의 명작 '예르: 비의 효과'(1875)도 그중 하나다. 인상주의의 또 다른 성지인 셈이다. 여행을 떠나면 대개 절묘하게 비를 피하곤 했던 것과 달리 필자는 이날 예르에서는 비를 맞닥뜨렸는데, 어쩌면 카유보트식 첫 대면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하면(그의 '비' 그림은 다 좋다) 나름의 낭만 어린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사실 필자가 '메종 카유보트'를 찾은 12월은 최적의 방문 시기는 아니다. 대개 봄부터 각종 기획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 산책과 더불어 부지 내 레스토랑에서 소소한 미식을 즐길 수 있기에 전원풍의 여유로운 한나절을 누리고 싶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겨울철에도 날 좋은 주말이면 지역 주민뿐 아니라 파리에서 찾아온 이들로 제법 붐비기도 한다.



#한 시대를 열었던 화가이자 후원자, 그리고...

● 겨울철이라 카유보트의 원화 작품이나 그와 관련된 다른 예술가의 기획전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간만에 청초한 비 내음을 맡으며 부지 내 정원과 아담한 탁발을 거닐다가 싱싱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로 허기를 달랜 뒤 하이라이프인 저택으로 향했다. 쉬이 짐작할 수 있는 카유보트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다. 자신가의 아들인 그의 부친은 판사를 지내기도 했고, 귀스타브 카유보트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지만 프로이센 전쟁에 참전하고 파리로 돌아온 뒤에는 미술에 매진했고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렸다. 그는 경제적으로만 풍요로웠던 게 아니라 마음도 넉넉했다. 모네, 르누아르를 비롯해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당시 기준으로 후한 가격에 구입하고 전시회 비용을 대주는 등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자신도 걸출한 화가였지만 동시에 동료들의 재능을 알아본 안목 있는 후원자, 그리고 수집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부친이 두 차례나 상처하는 바람에 그는 세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좋았고, 다 같이 문화 예술 분야의 취미를 공유했다. 그 우애와 취취를 메종 카유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구실과 뮤지엄, 독서실 등 다채



롭고 풍요로운 공간을 보노라면 19세기 부르주아 가족의 생활상이 절로 그려지는 듯하다.

●● 카유보트 집안 형제들은 가문에서 1860년부터 유지했던 예르의 저택과 부지를 귀스타브의 모친이 사망하자 1879년 처분한다. 귀스타브 카유보트는 그 뒤로 파리에서 주로 머물렀지만 워낙 조경과 원예에 관심이 많아 정원 일을 놓지 않았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그는 마흔다섯 살에 프티 제네비에에 있는 자신의 정원에서 일하다가 폐울혈로 작고한다. 그는 사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도 했고(회화 5백 점 정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를 위해 판매할 필요도 없었던지라 아티스트로서 평가받기보다는 후원자로 인식되는 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단명하는 아픔을 겪고 어느 정도 예감을 했는지 모네, 미네, 드가 등 인상주의 걸작을 위시한 다수의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 정부가 그 가치를 간과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절반 수준인 38점만 오르세 미술관에 유증된다. 뒤늦게 다 인수하려 나섰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유족이 거절하면서 나머지 소장품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카유보트의 직업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후손들이 판매를 하면서 화자됐고,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합한 그의 진가가 점차 인정받게 됐다. 이런 배경에서 오르세 미술관에 지닌 카유보트의 작품 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기억에 또렷이 각인될 만한 주요 작품이 존재감 있게 걸려 있는데, 사실 필자가 짧은 일정 중에도 예르행을 결심한 계기는 5층 전시실에 자리한 '바루 깎는 사람들(The Floor Scrapers)'(1875)이라는 그림이다. 글고성현은 현지 취재



느리지만 점차 눈에 띄는 변화의 조각들

a Stroll in Paris



어떤 도시든 여러 차례 방문하다 보면 감춰져 있던 속살이 자연스레 보이기도 하고, 즉흥적인 호기심이 발동해 나름의 탐색에 나서게 되기도 한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연한 계기로 뇌리에 제대로 박히게 되는 인연도 생긴다. 이번 호 예르 기행의 주인공인 귀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도 그런 존재였다. 이름도 알고 있고 작품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지만,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한 작품을 마주치고는 골뎠히 감상하는 순간을 누리게 됐다. 앞 글에서 언급한 마루 깎는 사람들(The Floor Scrapers)(1875)이라는 그림이다. 매주 카유보트를 방문하고 나니 다시금 이 작품을 보고 싶어 파리를 떠나기로 예정된 다음 날, 일정을 구겨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아침에 오르세 미술관을 찾았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예술의 힘이 솟구친 덕분에 하루 동안의 파리 산책 일정은 그렇게 일찍 시작됐다.



돌아온 뒤에도 세상은 달라질 수 없다. 실제 모습인데, 아니면 관점인데 말이다. 당장 카유보트의 그림이 걸려 있는 오르세 미술관만 하더라도 원래 1900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호화롭게 지은 기차역(오르세 역)을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것 아니던가. 그 이유는 플랫폼이 너무 짧아 이제는 내부 골격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단행한 뒤 다시 문을 연 1986년 당시를 말한다) 기차에 맞지 않아서였는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며 과거 유산을 잘 변주한 사례에 다름 아니다.

● 세월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카유보트가 마루 깎는 사람들 살롱전에 출품했지만 심사위원회가 '저속한 주제라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한 시절도 있었다(1875년). 그는 마룻바닥을 깎는 장인들을 관찰하다가 고단한 노동에 진중하게 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극화시키지 않고 담아냈을 뿐인데 말이다. 이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화 속 인물과 비견되는 '일상 속 영웅의 근육을 이상적으로 그렸는데, 온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식상한 오락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마치 사진을 찍은 듯 상세하게 다루며 존중감을 곁들여 거리를 유지한 작가의 담담하지만 부드러운 시선이 느껴진다. 올해 무려 1백 년 만에 하게

올림픽을 맞이하는 이 '빛의 도시'에는 어떤 설렘이 감돌고 있는 듯하다(헤밍웨이가 채류한 시기인 1924년 제8회 하계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다). 사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부터 궁정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분위기가 와닿았는데, 비록 3년여의 시간 동안 숨죽여야 했지만 그동안에도 착실하게 준비를 갖춰왔다는 느낌이 든다. 마스크가 옥죄었던 기간을 생각하면 우주의 기운도 파리를 도와주고 있는 셈 아닌가.

#2024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분주한 '빛의 도시'

●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도시는 매물찬 사람들에게 휘둘러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변화의 세월을 견뎌내는, 연약하고도 단단한 존재다. 팬데믹 기간에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지만 2024 파리 올림픽은 변함없이 흐르는 선상을 주무대 삼아 개막식의 혁신을 꾀할 예정이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이 도시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무려 60만여 명의 관객이 강변을 메워 보트 페어리로 펼쳐지는 개막식을 지켜보게 된다고. 또 '역사적인 공간의 변주를 요리해온 그간의 내공을 살려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예컨대

떠리는 두 번 다시 똑같지 않았다. 그림에도 그곳은 언제나 파리였고, 만약 그곳이 변한다면 동시에 사람들도 변하는 것이리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정수를 간직하되 변주와 혁신이 이끌어내긴다는 것

● 많은 이들이 파리처럼 고풍스러운 도시는 10년 만에 찾아도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맥락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서울이나 도쿄 같은 아시아의 메트로폴리스에서 느끼는 특유의 긴장된 분주함이 느껴지지 않을뿐더러 도시 곳곳에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 1세기 전쯤 미국의 문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파리에서 7년간 살면서 주머니는 가벼워도 행복했던 나날을 돌아보며 쓴 글처럼, 우리 자신을 포함해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잠시 떠난 여행에서



상헬라제는 커다란 사이클링 경기장으로 변신하고, 에펠탑 아래 마르스 광장에는 비치발리볼 경기장이 들어서며, 앙발리드와 베르사유 궁전, 그랑 팔레 같은 장소도 다국적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무대로 거듭나게 된다. 또 새롭게 가세한 '브레이크 댄스' 같은 종목은 비롯해 스케이트보드, 3X3 농구 등 역동적인 어번 스포츠 경기는 모두 콩코르드 광장에서 열린다. 이처럼 내로라하는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바라보는 관중은 있고 마스크는 없는 올림픽이라니. 마침 1구에 자리한 숙소였던 파리지역 감성으로 새롭게 단장한 세련된 부르크 호텔 르 캄봉(Le Cambon)에서 미술관 산책을 위해 튀일리 정원을 지나 선장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오가면서 바라보니, 상상만 해도 벅찬 풍경이 미리 떠올랐다.

● 올여름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파리 올림픽(2024. 7. 26~8. 11)에는 '의미 있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럿 따라붙는다. 우선 특기할 만한 점은 남녀 성비를 동일하게 맞춘, 그러니까 최초의 양성 평등 올림픽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사상 처음으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기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실제 경기 코스



1 파리 1구 튀일리 정원으로 가는 입구. 2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의 인상주의 작품들이 자리한 5층 전시실에 걸려 있는 귀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의 1875년 작품 '마루 깎는 사람들(The Floor Scrapers)'.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을 몰살당한 지만 자신의 소장품을 오르세에 기증한 카유보트만 장작 그 자신의 작품은 흩어져 있는 편이라 희소성이 높다. 지난해 초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이끄는 LVMH 그룹의 후원으로 오르세 미술관은 귀스타브 카유보트의 Parle de bateau라는 작품을 소장품 목록에 넣었는데, 이 작품의 추경가는 무려 4천 9백만 유로다. 3 영국 현대미술가 피터 도이그가 오르세 소장품을 대상으로 기획에 참여한 전시가 지난 1월 말까지 오르세 미술관에서 열렸다. 4 세계적인 메가 갤러리 하우스재팬(USJ)이 올해 가을 파리에 문을 열면서 진행한 미국 작가 헨리 태일러 전시 모습. 파리+라고 불리는 아트 바젤 파리(Paris+ par Art Basel) 개막 주간에 맞춰 선보였다. 5 파리 7구에 있는 로망 미술관에서 지난 3월 3일까지 열린 영국 조각가 앤터니 고펜(Antony Gormley)의 개인전 (Critical Mass) 설치 모습. 6 아르노 회장과 더불어 프랑스 미술계 슈퍼 캠퍼리로 케어 그룹의 장갑차까지도 한 프랑수아 피노의 개인 미술관 피노 컬렉션 내부. 옛 상업거래소(Bourse de Commerce) 건물에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레노베이션 작업을 통해 2020년 전시장으로 대중에게 선보였다. 7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에서 진행 중인 거장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전시 풍경. 오는 4월 2일까지. 8, 9 2014년 가을 파리 사롱(16구) 볼로뉴 숲의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한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설계는 '스타카토' 프랭크 게리가 맡았다. 10 파리 14구에 자리한 까르띠에 현대미술 센터에서 건축가 비조이 자인(BiJoey Jain)과 함께한 특별전 (건축가인 숲)이 열리고 있다. Photo by 성장민 11 비조이 자인은 인도 건축 사무소 스튜디오 율바의 창립자이자 건축가로 이번 전시에서 장 부레이 설계한 까르띠에 현대미술 센터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해 자연 속에 깃든 인간, 인간이 깃든 자연을 담아내려 했다. © Marc Damage 이미지 제공, 까르띠에 12-14 파리 1구에 자리한 귀공고 세련된 파리여행 감성의 부르크 호텔 르 캄봉(Le Cambon). 레노베이션을 마쳐 절경하고 아름다운 호텔은 상헬라제, 튀일리 정원, 콩코르드 광장,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갈 수 있는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아기가자한 티 샵과 비교도 운영한다. 주소 hotelcambon.com ※ 1~9, 12~14 Photo by 고성민

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종목(10km와 폴 코스 중 선택 가능)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올림픽에 참여하는 경험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다. 또 시상식 역시 관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콘셉트로 기획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올림픽 기간에 현대미술, 패션, 공연, 서브컬처 등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행사가 더 경이로운 수준으로 펼쳐지리라는 건 비밀이 아니므로 파리 자체가 '축제'의 현장이 될 테지만 말이다. 또 파리 외에도 올림픽 공식 경기가 펼쳐지는 보르도, 낭트, 마르세유 등의 도시들은 저마다 매혹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 콘텐츠를 새롭게 장착하고 카운트다운만을 기다리고 있다.

#메세나인가 브랜드인가? 전략적 행보가 돋보이는 브랜드들의 문화 예술 경영

● 팬데믹 기간 직전이나 직후에 파리를 찾은 이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파리에는 매혹적인 공간과 시도가 더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는 제2의 부흥기를 거둔 정도로 흥분이 불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동력은 글로벌 아트 페어의 성공적인 انع착이다. 2022년 파리+ 바이아트 바젤(Paris+ par Art Basel)이라는 다소 어색하고 복잡한 이름으로 등장한 이 현대미술 페어는 세계 최강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의 모기업 스위스 MCH 그룹이 이 도시의 대표 페어였던 파와(FIAC)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킨 플랫폼이다. 사실 기존 인력을 어느 정도 흡수한 데다 페어 장소(그랑 팔레 에펠레르)도 변하지 않은 터라 "뭐 그리 달라지겠어?"라고 사문둥한 이들도 있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다. 첫해는 가장 효과도 있었겠지만, 2회가 열린 지난해 가을에도 분위기는 상승세였다. 올해는 본 전시뿐만 아니라 팔레가 보수 공사를 마치고 페어 무대로 다시 나설 예정이라 판이 확 커진다. 하우스재팬, 데이비드즈

이처럼 미술계의 체급이 올라가는 변화의 배경에는 메세나 활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의 행보도 큰 몫을 차지한다. 현대미술은 럭셔리 브랜드의 판권으로 불리기도 하는 영역 아니던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아트 페어와 협업을 맺는 브랜드의 전략적 마케팅도 있지만, 웬만한 글로벌 미술관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컬렉션과 기획력을 내세워 '블루버스터' 전시를 선보이니 시너지 효과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6구에 호젓하게 자리한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마크 로스코 전시가 열리고, 도심(1구) 레알 지역의 역사적 기념물인 옛 상업거래소(Bourse de Commerce)의 인상적인 동형 건축물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피노 컬렉션의 대형 기획전이 펼쳐지는 식이다.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더불어 럭셔리업계의 양대 산맥이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예술계 큰손이기도 한 프랑수아 피노 회장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모아놓은 파리의 프로젝트가 대결하는 양상이다. 파리발 메세나의 원조로 여겨지는 까르띠에 현대미술 재단도 14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13배나 더 큰 새로운 아트 센터를 도심에 열 예정이라 하니 안 그래도 '발품 팔' 일 많은 파리에서의 문화 예술 산책이 즐겁다 못해 버거워지지 않을까 걱정마저 된다. 글 고성민 파리 현지 기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아제 홀로 데이트** 36mm 케이스의 베젤에는 약 0.97카트의 6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이원 마카에는 총 0.07카트의 3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시선을 끄는 동시에 스틸과 18K 핑크 골드 케이스가 은은한 맛을 전한다. 자체 제작 500P1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4천300만원, 문의 1668-1874 **다음 타임리스 라디드 다음 타임리스** 옐로 골드 케이스와 화이트 마더오브밀 다이얼이 하모니를 이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배가한다. 총 0.05카트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말라-조 메시 브레이슬릿으로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카르띠에 산토스 드 카르띠에** 옐로 골드와 스틸 소재를 적용했으며, 사각형 실루엣이 클래식한 맛을 부여한다.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4백만원대, 문의 877-4326 **브라이틀링 크로노멧 32** 총 0.46카트의 5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해 화려하고 우아한 맛을 전한다. 전 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이루어졌으며, 18K 레드 골드 소재로 크라운과 베젤에 포인트를 더했다. 브라이틀링 칼리버 77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792-4371 **블가티 세르만티 무브먼트** 35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곡선형 케이스가 특징이며, 베젤은 로즈 골드 소재로 재질하고, 총 0.293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특히 기묘세 솔레이 차환한 살바 오물린 다이얼이 단정하면서도 전한다. 1천3백30만원, 문의 02-6105-2120 **소피드 해 피스프츠**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33mm 케이스에 스틸과 골드 소재의 조화가 클래식한 무드를 더한다. 다이얼의 아이리쉬-한 무빙 다이아몬드를 감상할 수 있으며, 자체 제작한 셀프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09.01-C를 장착했다. 2천4백72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윤자경**



Perfect Harmony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만나 아름다운 미감을 선사하는 콤비네이션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니테로 사진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프래드 프라티 우먼 에이지스 네크리스**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하는 프린세스 컷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루벨라이트를 세팅하고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다이애나 미오사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1.72카트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세팅해 움직임 때마다 눈부신 광채를 부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부발라티 라미지 펜던트** 정교한 세공을 통해 일사규와 꽃의 특징적인 모습을 주얼리에 담았다.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사용하고, 총 0.277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3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소피드 다이얼트 칼렉션 네크리스** 라블리한 무드를 자아내는 하트 모티브에 1카트의 23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4백90만원, 문의 02-6905-3390 **파베르제 옐로우 골드 타워이즈 기묘세 에-렐 하트 사프라이즈 로켓** 기묘세 에나멜링으로 장식해 실크처럼 아름다운 표현과 영롱한 색감을 표현하고 하트 디테일로 장식해 귀여운 면모를 보여준다. 총 0.37카트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재질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2-4706 **그라프 스파이럴 칼렉션 하트 웨이브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 펜던트** 총 0.447카트의 1백4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세팅해 은은한 광채를 부여하는 동시에 고인 디테일이 유니크함을 배가한다. 8백만원, 문의 02-2256-6810 에디터 **윤자경**

my Sweet Heart

달콤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하트 모티브 펜던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니테로 사진

2024 S/S Trend Report for women & men

이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울 수 있을까. 파일럿과 농부가 입을 법한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룩을 비롯해 모범생 특인 일명 깃 시크 룩, 여성 쇼에서 두각을 드러낸 남성 테일러링 디테일과 이와 반대로 남성 쇼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유려한 실루엣까지, 2024 S/S 트렌드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Trend 1_ New Generation Workers

매해 컬렉션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비즈니스 룩. 이번 시즌에는 항공, 농업 등 더욱 발전되고 디테일하게 표현된 기술자의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은 룩을 대거 선보였다. 막스마라에서는 1940년대 여성 농업인이 워크 웨어로 입었던 오버올에 수납성 높은 빅 사이즈 포켓과 견고한 스티치를 더했다. 또 생 로랑 컬렉션에서는 파일럿을 연상시키는 가죽 보닛과 변주된 에이비에이터 선글라스, 그리고 커다란 포켓을 다한 모노톤의 점프수트까지,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피스에 고유의 관능미를 더했다.

Trend 2_ Ever Changing Fringe

프린지에 비즈를 하나하나 엮어 움직일 때마다 화려함을 선사하는 구찌의 아우터부터 메탈릭 실버 프린지를 더해 도회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프라다의 스커트, 그리고 새하얀 원피스에 사선 블랙 롱 프린지로 우아한 포인트를 준 페라가모 룩, 톱 전체를 곡선의 형태로 디테일의 프린지를 가미한 발렌티노까지. 이번 2024 S/S 시즌을 대표하는 디테일은 바로 과감해진 프린지다. 그동안 컬렉션에서 프린지 장식이라는 키워드가 수없이 언급되었지만, 특히 이번 시즌에는 비즈나 메탈로 장식하거나, 컬러풀한 원사를 사용해 소재를 꽤 근사하게 변주했다. 버버리는 무릎까지 사선으로 떨어지는 니트 원피스에 같은 원사로 목부터 길게 늘어뜨린 프린지로 완성해 관능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룩을 선보였다.

Trend 3_ Micro Skirt

치마 길이가 한층 짧아졌다. 무릎 위로 오는 길이는 기본이거나 속옷을 아슬아슬하게 가릴 정도로 짧은 길 이까지 등장한 것. 심플하고 현대적 인 무드의 구찌 레터 스커트와 니트, 그리고 볼드한 베르사체의 조화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스타일링이다. 반면 치마에 주름 디테일을 더해 풍성 풍실 구름 같은 실루엣을 연출한 미우미우 스커트와 발리 룩이 이번 미니스커트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다. 디스퀘어드 컬렉션에서는 여성용 테니스 스커트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진주 목걸이, 더블브레스트 재킷, 그리고 메탈 스트랩을 매 치해 화려한 마이크로 스커트 룩을 완성했다.

Trend 4_ I'm a Maximalist

2024 S/S 컬렉션의 백 키워드는 '보부상 코어'로 정의된다. 붓집을 가지고 다니는 행상처럼 런웨이 위 모델 들은 오버사이즈 백 안에 일상적인 물건을 가득 담아 등장 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보테가 벤테라. 오버사이즈 바스켓 우븐 인트레치아로 백이나 거대한 더블 백 속에 이전 시즌에 선보였던 옷이나 돌돌 말린 신문을 마구 넣었는데, 어수선해 보이든 말든 그 자체로 '멋'이다. 또 미우미우에는 일상적인 소지품을 가득 담은 백에 키 링과 체인 장식 네임 태그까지 달아 맥시멀리스트의 개방로써 면모를 보여줬다. 이번 백 트렌드로 SNS를 가득 채운 해시태그 #백꾸(백 꾸미기)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Ever Changing Fringe VALENTINO



Man in Woman DOLCE & GABBANA



Man in Woman MOSCHINO



Higher and Higher LOEWE



Peach Fuzz Romanticism FENDI



Peach Fuzz Romanticism GIVENCHY

Trend 5_ Man in Woman

여성만의 매력적인 제스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 남성 테일러링 실루엣과 디테일을 활용했다. 톱 포드에서는 남성복 쇼의 전유물이라 여겨온 무결점 수트, 쇼츠와 매치한 정교한 블레이저 룩을 선보이며 맨 테일러링을 유연하게 변형했다. 돌체앤가바나 역시 강인하고 도발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클래식하고 타임리스한 시칠리아 테일러링을 연상시키는 윈스트라이프 패턴을 선택했다. 패션에서 남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리스 트렌드를 넘어 남성적 요소를 활용해 여성의 고아한 강인함을 보여준 것이다.

Trend 6_ Higher and Higher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혹은 실종되거나, 늘 예측할 수 없는 하의 패션의 트렌드. 이번 2024 S/S 하의는 '올트라 하이웨이스트'다. 로에베의 쇼에서는 모델들이 허리 위로 끌어올린 팬츠의 주머니에 손을 무심하게 찔러 넣고 런웨이를 걸었다. 릭 오웬스는 허리 위부터 시작해 허리를 잘록하게 잡아주고 바닥에 끌릴 정도의 롱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선보였고, 생 로랑은 하늘거리고 넉넉한 핏의 상의에 에지를 부여하는 하이웨이스트 플루트 팬츠를 매치한 관능적인 룩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 쇼핑 리스트에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추가해 길고 긴 다리를 더 자신 있게 뽐내볼 것.

Trend 7_ For Elegant Attitude

실루엣을 잘 깨치는 것이야말로 트렌드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이번 남성의 상의는 둥글고 과장된 숄더 재킷이나 플레어한 턱시도 재킷,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소매가 긴 풀오버와 같은 룩이 자주 포착되었는데, 곡선의 형태에 집중한 듯하다. 아예 부분부터 부드럽게 흘러내려 슬리브까지 간결하고 길게 뻗은 상의를 선보인 드리스 반 노트, 더욱 길어지고 대담한 사이즈의 돌체앤가바나 화이트 코트, 어깨선부터 튜브처럼 풍성한 소매단을 강조한 프라다의 셔츠, 그리고 몸을 따라 직선으로 떨어지는 유려한 실루엣의 지방시 코트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입체적인 비대칭 실루엣을 통해 남성의 우아함과 섬세함으로 이번 시즌 맨즈 런웨이를 수놓았다.

Trend 8_ Peach Fuzz Romanticism

2024년 키 컬러는 핑크와 옐로우 컬러 중간 어디쯤인 듯한, 잘 익은 복숭아 따오르는 컬러, 피치 퍼즈. 이미 2024 S/S 맨즈 컬렉션에서 다양한 피치 퍼즈 컬러 룩이 자주 눈에 띈다. 톤 다운된 팬츠, 밝은 톤의 롱 셔츠에 브라운 슈즈와 옐로우 컬러의 백으로 마무리해 톤온톤 스타일링을 보여준 켄디, 셔츠와 코트 모두 피치 컬러를 사용한 에르메스, 수트까지 피치 퍼즈 컬러로 물들인 켄조, 민트 슈즈와 피치 퍼즈 컬러의 팬츠 조합을 보고 있으니 피치 퍼즈의 사랑스러움에 빠져들기 충분하다.

Trend 9_ Geek Chic

4대 패션 위크를 장악한 메가 트렌드가 있으니 바로 깃 시크다. 지난 시즌 미우미우에서 선보인, 모범생이 쓸 법한 촌스러운 안경이 패션 트렌드의 중심이었었는데, 그 유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 더 엉뚱하고 사랑스럽게, 과거를 의미하는 지(Geek)와 세련됨을 뜻하는 시크(Chic)가 만나 깃 시크라는 모순적 매력이 선사하는 룩이 대거 등장했다. 빈티지 무드의 안경과 병방한 핏의 화이트 수트, 여기에 둥근 로퍼를 더한 켄조, 학창 시절 유행했던 일명 턱받이 코트에 화이트 타이즈를 매치한 메종 마르자엘라, 줄업 앨범에서 볼 수 있을 듯한 빛바랜 모자와 안경으로 너드한 멋을 추가한 발리까지, '촌스러울수록 세련됐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Trend 10_ Animal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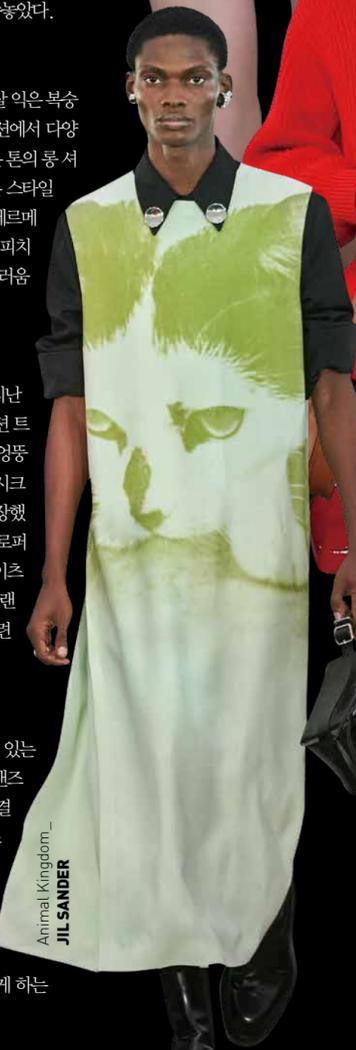
평소 시도해보지 못했던 애니멀 프린트를 자신 있게 연출해볼 수 있는 시즌이다. 생 로랑 디렉터 안토니 바카렐로가 만들어낸 우아한 맨즈 룩의 키 포인트는 레오파드 프린트, 클래식한 테일러드 재킷과 간결한 트레이닝 디테일을 가미한 레오파드 상의가 조화를 이뤄 하우스만의 섬세하며 우아한 매력을 뽐냈다. 질 샌더는 세련되고 섬세한 화이트 룩에 파이톤 소재로 완성한 코트나 부츠를 매칭해 남성성을 위한 올드머니 룩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핑크, 네온 라임 컬러의 상의에 강아지나 고양이 얼굴 프린트를 넣어 애니멀 프린트는 색시와 관능의 상징이라는 프레임에 깨고,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에디터 윤자경



For Elegant Attitude PRADA



Geek Chic BALLY



Animal Kingdom JIL SANDER



New Generation Workers MAX MARA



I'm a Maximalist MIU MIU



Micro Skirt BALLY

Another New Iconic

셀린노에서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트리옹프 백의 뒤를 이을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인다. 바로 탈리 백, 빅투아르 백, 그리고 러너가 그 주인공. 톰보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팝 펑크 문화의 다채로운 재해석을 보여준 이번 컬렉션의 신제품인 만큼, 젊고 대담하며 신선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카프 스किन으로 완성해 고급스러운 은은한 광택감을 자랑하는 동시에 인강을 렘 스किन으로 제작해 견고함을 더했다.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장착해 숄더백 혹은 핸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엄 탈리 백 가격 미정 백 셀린노 바이 에디슬리먼.

이니스테트 신성현, 김보민

빅투아르의 근원을 아상히 보여주는 트리옹프 로고를 가죽 벨에 부착했으며 구조적인 디자인이 도화적인 맛을 발산한다. 슬리피를 채운을 장착해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일링 가능한 빅투아르 백 가격 미정 셀린노 바이 에디슬리먼.



(위부터 시계대로) 1990년대 라닝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너 라인은 단순하면서도 편안한 매력을 통해 스포티한 느낌을 전한다. 미국 캠퍼스 룩을 연상시키는 영한 감성의 셀린느 레너 CR02 C-패치, 하우스의 상징적인 트리올림프 문양을 다했으며, 외부 측면 가죽 컷아웃 디테일이 특징인 셀린느 레너 CR01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셀린느 룩의 정수를 구현하는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광택감과 투명도의 밸런스가 절묘한 최고급 가죽으로 완성했다. 이코닉한 형태로 펼쳐지고 내부 지퍼 포켓이 달려 있어 뛰어난 수납성을 자랑하는 트리올림프 백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문의 1577-8841 에디터 윤자경





The Queen's Flower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노하우로 탄생한 다미아니 마르케리타 컬렉션과 배우 이성경의 아름다운 조우.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는 1924년 엔리코 다미아니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탈리아 주얼리 전통의 중심지인 발렌차 지방의 금세공 장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진정한 세공 마이스터이자 탁월한 보석 상으로 백을 있고 있다. 특히 매종 다미아니의 주얼리 컬렉션은 창의성과 장인 정신, 독창성,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오랜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전체를 수공예 제작하며, 골드부터 다이아몬드까지 귀중한 소재와 스톤을 모던함과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다루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덕분에 브랜드의 대표적 컬렉션인 벨 에포크와 마르케리타, 미모사 등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마르케리타 컬렉션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다미아니의 헌사와 애정을 담은 대표 컬렉션이다. 다이아몬드는 세공과 세팅 방식에 따라 다른 빛깔을 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며, 세팅 시에도 매우 섬세한 작업을 요한다. 마르케리타 컬렉션은 디자인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구현했을 뿐 아니라 컬러 스톤의 매치까지 고려한 완성도 높은 컬렉션임을 틀림없다. 마르케리타 컬렉션 주얼리의 역사는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엔리코 그래서 다미아니가 마르케리타 여왕에게 헌정한 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인 것. 이

역시 발렌차의 숙련된 금세공 장인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테이지 플라워의 형태를 모티브 삼아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으로 풀어냈다. 다양한 형태와 볼륨의 테이지 플라워를 정교하게 형상화했으며 화이트·핑크·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 자수정, 시트린, 사파이어와 같이 골드와 스톤에 변주를 주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를 선사한다. 아름다운 꽃 모티브로 로맨틱함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마르케리타 컬렉션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여왕의 주얼리, 마르케리타 컬렉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미아니의 대표 컬렉션인 마르케리타는 움베르토 1세의 아내이자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명성이 높았던 이탈리아의 왕비, 마르케리타에게 헌정한 엔리코 다미아니의 전설적인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주얼리다. 테이지 플라워에서 디자인적 모티브를 따온 이 주얼리 컬렉션은 다미아니만의 장인 정신, 그들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꽃잎으로 재탄생시켜 만발한 다이아몬드 플라워의 절정을 보여준다. 꽃잎을 하나하나 엮어 완성하는 섬세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움직임에 따라 환상적인 반짝임을 선사하며, 청초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먼트를 담았다. 최



1 매종 다미아니의 뮤즈, 배우 이성경과 함께 한 새로운 캠페인 비주얼. 2 대담한 실루엣과 볼륨감을 자랑하는 화이트 골드의 다이아몬드 소재의 마르케리타 링. 3 3개의 테이지 플라워로 연출한 마르케리타 링. 4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로 완성한 마르케리타 이어링. 5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테이지 플라워를 신사 향료로 세팅한 마르케리타 네크리스. 6 배우 이성경과 함께한 다미아니의 새로운 캠페인 비주얼, 마르케리타 이어링과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링을 모두 착용해 아름답게 소화했다.

근 배우 이성경이 다미아니의 뮤즈가 되면서 마르케리타 컬렉션의 이어링, 네크리스, 링과 브레이슬릿을 풀 착용한 모습으로 촬영을 마쳤다. 스크린에서 늘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면서도 아름다운 여성상을 대표하는 그녀답게 마르케리타 컬렉션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가 착용한 이어링과 네크리스, 링, 브레이슬릿은 각자 다양한 볼륨의 다이아몬드 테이지 플라워로 이뤄져 리드미컬한 모습을 선보인다. 링과 브레이슬릿은 여러 방식으로 레이어링해 착용해도 좋으며 레이어드할수록 더욱 화려하고 빛나는 테이지 플라워의 광채를 만끽할 수 있다. 다미아니는 “참여하는 작품마다 안정된 연기와 대체 불가능한 매력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증명하며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이성경은 연기뿐 아니라 노래와 춤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갖춘 배우이자 아티스트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개인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매력이라는 가치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배우 이성경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성경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다미아니의 새로운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우아함과 독창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캠페인 뮤즈로 발탁된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문의 02-515-1924 **에디터 장영민**



Ultimate Time

혁신성에서 뿌리를 둔 워치메이킹 하우스의 위엄을 보여주는 위블로의 뉴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4. 선구적인 기술력을 감상할 수 있는 정교로운 시간을 선사하다.

끊임없는 혁신, 빅뱅 유니코 그린 삭셀

사파이어마스크 견고하지만, 사파이어보다 더 밝은 광채를 지니는 삭셀. 위블로가 통합 매뉴팩처로 자리 잡은 아래로 연구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해온 결과로 얻은 혁신적인 소재다. 사파이어보다 구조 변형이 적고 더욱 매끄러운 42mm 케이스는 밀도 높은 디자인으로 완성해 삭셀 소재의 파워를 담아냈다. 아이코닉한 티타늄 H형 스크루 6개가 자리 잡은 베젤과 케이스의 아주 작은 윤곽선에도 그린 삭셀 소재를 사용해 빛을 발산하는 듯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12시와 6시 방향에는 특허 받은 위블로의 원 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다. 무브먼트로는 유니코 2 칼리버이자 차세대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에 해당하는 HUB1280을 장착해 여전히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이기 는 하지만 그린 삭셀 케이스 백을 통해 고성능 텅스텐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집가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간다. 무브먼트는 크라운, 2개의 푸셔와 마찬가지로 블랙 PVD로 마감 처리하고, 인덱스와 핸즈에 사용한 야광 소재 또한 위블로 그린 삭셀의 컬러를 그대로 반영했다. 최초로 선보이는 빅뱅 그린 삭셀 시계는 1백 피스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특별한 타임피스로 기억될 것이다.

창조의 정수, MP-10

위블로에서 5백92개의 부품, 5년의 연구와 개발 기간, 2개의 선행 추, 35도 경사를 이루는 1개의 투르비용을 갖춘 궁극의 워치, MP-10 투르비용 웨이트 에너지 시스템 티타늄을 새롭게 선보인다. 일반적인 핸즈를 장착하는 대신 끊임없이 회전하는 4개의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다이얼 위쪽에는 아워 및 미닛 표시와 투명한 돛보기, 가운데에는 그린 존과 레드 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원형 파워 리저브를 갖추었으며, 아래쪽 투르비용 케이스에서 세컨즈를 표시한다. 이렇게 칼리버와 다이얼을 하나로 결합해 무



브먼트 자체가 워치의 얼굴이자 영혼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빛난다. 인디케이터는 모두 블랙 알루미늄 물리에 동일한 화이트 래커 타이포그래피로 장식한 디자인으로 완성해 통일된 느낌을 주며, 각 인디케이터에서는 레드 컬러의 삼각형 마커로 현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러진 특별함으로 위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순수한 광채의 향연

워치메이킹 기술과 미학의 정수인 주얼리가 결합된 스피릿 오브 빅뱅 32mm 주얼리. 총 여섯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화이트 골드, 자체 제작 소재인 18K 골드 핏금이나 5N 골드보다 따뜻한 무드를 선사하는 킹 골드,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완성했다. 총 2만7천7백82개의 각면으로 이루어진 4백7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또는 킹 골드 소재의 스피릿 오브 빅뱅 주얼리는 마치 수천 개의 별이 떠 있는 듯 화려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또 총 2.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미들 케이스, 베젤, 다이얼에 눈부신 광채를 부여한다. 빅뱅 특유의 매력과 세련된 젤스톤이 한데 어우

완벽한 칼리버레이션

프랑스의 아티스트 리차드 올린스키와 위블로가 협업해 완성한 클래식 퓨전 투르비용 올린스키. 아티스트의 손길로 완성된 선명한 옐로와 스카이가 블루 컬러로 선보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워치는 수동 와인딩 HUB6021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크라운 및 베젤 주위에 자리한 6개의 H형 스크루 같은 구성 요소는 블랙 PVD 스킨을 브리지를 통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1백5시간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자리하며, 6시 방향의 투르비용을 통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38-6031 **에디터 윤자경**



1 42mm 케이스 위블로의 혁신적인 소재로 완성한 빅뱅 유니코 그린 삭셀. 2 MP-10 투르비용 웨이트 에너지 시스템 티타늄. 3 따뜻한 핏금의 고급스러운 무드를 선사하는 킹 골드로 제작한 스피릿 오브 빅뱅 32mm. 4 영한 감성을 전하는 컬러감미 특징인 클래식 퓨전 투르비용 올린스키.

울 소재의 에펠탑 패턴 재킷,
코튼 포플린 소재의 블리우즈,
울 소재의 오픈 스카트,
아디오러블(Adorable) 핏프스
모두 가격 미정 다음.

블랙 울 그랑 드 푸드르 소재의
코르셋 디테일 상금브레스트
테일러드 재킷, 블랙 울 그랑 드
푸드르 소재의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Power of Spring

새로운 시즌,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2024 봄의 뉴 키 룩.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울 및 캔버스 소재의 코트
7백62만원, 니트 소재의
보디슈트 3백48만원, 울 소재의
팬츠 3백65만원 모두 에르메스.



블랙 양브로이더드 레더
드레스, 블랙 레더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피크트 라벨이 달린 블랙 실크 개버딘
소재의 더블브레스트 포켓 디테일 재킷
6백40만원, 타이프 벨트를 더한 로
웨이스트 실루엣이 올 블랙 개버딘
소재 포켓 디테일 쇼츠 2백16만원,
올스핏 디테일의 블랙 레더 플랫슈oes 모카신
2백만원, 골드 톤의 메탈 아리나 체인
너클라스 3백30만원 모두 구매.



실크 소재의 풀오버, 실크
오간짜 소재의 드레스,
스트레치 저지 소재의 스웨
شرت, 블랙 플리플롭 모두
가격 미정 사넬.





블랙 실크 소재의 재킷 8백10만원,
실크 소재의 스커트 6백86만원,
스트레치 울 소재의 레깅스
2백64만원, 새틴 소재의 펌프스
1백36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돛 디테일의 니트 드레스,
차차를 펌프스, 스틸링
삼버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보티가 베네타.

헤어 경민정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Angelika Floryan(Jennifer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에르메스 02-542-6622
구찌 02-3452-1521
샤넬 080-805-9628, www.chanel.com
프라다 02-3442-1830
로로피아나 02-546-0615
디올 02-3280-0104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보티가 베네타 02-3438-7682



LANVIN

BLANC

PRO-AM with SERI PAK

박세리와 함께하는 랑방블랑 프로암 이벤트

1차 : 2024.04.25 (목) 아난티 남해 C.C
더현대 대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광주점
롯데백화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더한섬하우스 광주·부산·제주, 더한섬닷컴

2차 : 2024.05.07 (화) 성문안 C.C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목동점·판교점
더현대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경기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더한섬닷컴

대상 : 2024.02.01 ~ 03.31 기간 내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추첨

당첨자 발표 : 2024.04.12

당첨자에게 개별문자 발송 예정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당첨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중복 지원 불가



for My Love

사랑하는 이를 위한 사벨의 특별한 기프트 제안, 코코 마드모아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코코 마드모아젤 코프레 세트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빠르팡 100ml
+ 코코 마드모아젤 바디 오일
200ml, 39만5천원)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코 마드모아젤은 여성들에게 매일 새로운 섹시함과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코코 마드모아젤을 좋아하는 이라면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빠르팡과 코코 마드모아젤 바디 오일을 함께 사용해 매력적인 앰버리 향을 더욱 오래 즐길 수 있는 코코 마드모아젤 리추얼을 주목할 것. 대담하고 자유로운 여성을 위한 앰버 계열 향수로 상대함과 관능적인 느낌이 대조를 이루며, 시트러스 과일 향의 톤 노트로 모든 감각을 일깨우고, 중심이 되는 플로럴 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어서 사벨에 수확한 로즈와 오렌탈 재스민 꽃 향이 조화를 이뤄 하우스만의 감각적인 향을 선사한다. 이어 바번 바닐라의 관능적인 향과 인도네시아산 파슬리의 깊은 향, 아이티산 베티베르의 따뜻한 향으로 연결된다. 또 편안함을 선사하는 화이트 머스크 노트가 피부 위에 가볍게 퍼지며 은은하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감각을 일깨우는 관능적인 앰버리향은 시간을 초월하는 고유의 향으로, 사벨이 지닌 모던함의 정수가 바로 이 퍼퓸에 온전히 담겨 있다. 또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빠르팡의 향을 담은 코코 마드모아젤 바디 오일은 섬세하고 실용적인 텍스처로 부드럽게 감싸며 은은한 향으로 피부를 새틴처럼 매끄럽게 가꿔준다. 무엇보다 감각적인 포뮬라가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하고 뿌렸을 때 오랫동안 향이 지속되게 하며, 천연 유래 지수 79%로 식물성 호호바 오일을 함유해 강력한 보습력을 선사한다. 다카오는 화이트데이와 입학 시즌을 위한 최고의 선물 아이템으로,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빠르팡과 바디 오일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코코 마드모아젤 코프레 세트를 제안한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구성되어 있어 소중한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선물로 충분하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윤지영



자형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 SPF 45 PA+++ 12g 9만9천원대, 리필 12g 6만3천원대.

Prism Power

완성도 높은 아름다운 피부는 광채와 윤기로 결정된다. 스킨-케어링 효과로 메이크업하는 내내 피부 걸뻘 아니라 속까지 수분과 윤광을 선사해줄 단 하나의 자형시 뷰티 쿠션과 파운데이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자형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파운데이션 30ml 8만2천원대.
자형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 SPF 45 PA+++ 12g 9만9천원대, 리필 12g 6만3천원대.

독보적으로 빛나는 윤광 피부

자형시의 아이코닉한 메이크업 라인, 프리즘 리브르는 2006년 어떻게 하면 빛나는 윤광 피부를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해답을 얻기 위해 탄생했다. 그리고 최근 선보인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을 통해 라인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 쿠션의 차별점은 단연 텍스처다. 소량으로 얇게 타치해도 깔끔한 커버력과 윤광 파뻘결을 선사하며, 24시간 동안 윤광*과 수분** 감을 지속시킨다. 89%***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했다는 점 또한 놀랍다.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가 답답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를 편안하게 하는 스킨-케어링 효과로 피부를 보호하며 영양감을 부여하는 것. 광채와 생기를 부여하는 한편화 추출물, 편안함을 선사하는 보톡 추출물, 수분감을 제공하는 식물성 글리세린을 함유해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하루 종일 편안한 피부를 느낄 수 있으며, 스킨케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더불어 SPF 45 PA+++의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겸비해 간편함까지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고급스럽고 시크한 무드의 패키징은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의 소장 가치를 더욱 높였다. 광택감이 느껴지는 코팅과 정교한 4G 모노그램 엠

보 패턴을 블랙 사각 케이스에 적용해 한층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리필 교체용 재사용 기능도 도입했으며, 기존의 탱 꾸러미 쿠션 리필과도 호환 가능하다. 한번의 타치로 놀라운 윤광 피부를 완성하는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을 만나보자.

글로우 스킨을 위한 퍼펙트 듀오

쿠션과 함께 같은 프리즘 리브르 라인인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자형시 뷰티의 글로우 스킨을 완성하는 원조 격 아이템이다.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자연 유래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건강한 광채를 만들어준다.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 단독으로 사용해도 완벽한 광채 메이크업을 완성해주시지만 파운데이션과 함께 사용하면 광채를 더욱 오래 지속시켜며, 섬세하고 세밀한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것. 총 12가지 세이드로 피부 톤에 따라 다양한 섀도가 가능하고, 이질감 없이 마치 원래 좋은 피부인 듯한 전문적인 메이크업을 돕는다. 문의 080-801-9500 에터비 상담원

*27명을 대상으로 한 기기 평가 결과 **32명을 대상으로 한 기기 평가 결과 ***색소 침착 전 스킨케어 베이스 최소량

editor's Pick

피부 고민은 덜어주고 싱그러움으로 채워줄 이달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뷰티 컬러 익스플로러트 울트라 슬릭 사인 립스틱 222 히트 오브 더 모먼트 립스틱을 바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갈라지고 흐려지는 강함을 했다면 이 제품을 꼭 사용해볼 것 추천한다. 처음 바른 컬러 그대로 오래 지속될만큼 바르는 즉시 입술에 수분과 영양을 채워 플럼핑 효과를 줘 두 볼륨 립을 연출한다. 0.7g 2인분용.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윤자경*

상하이 시 티를 아이사이드우 #원 해당 생체계를 보존하고자 상하이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펴낸 울트라 슬릭, 두 가지 버전의 아이사이드우를 출시했다. 바디가볍고 사석하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뉴트럴 톤으로 베이스부터 포인트까지 3종으로 담았는 데, 은은하게 빛나는 펄과 실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마음에 들었다. 골드 컬러의 바디가볍고 장시간 귀여운 메탈릭 그린 패키지가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3.5g 12인분용. 문의 070-4370-7511. *_by 에디터 신정민*

송37 퍼펙트리프트 인텐스 퍼밍 크림 볼로 넣아가는 이 계절에 극진한 피부는 아직까지 건조함과 탄력 저하를 호소한다. 턱, 볼, 팔자 주름 등 탄력이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리프팅 효과와 광채를 주는 이 크림을 얼굴 전체에 도포하니 건조함까지 잡아주는 듯한 느낌. 영양과 안티에이징, 두 가지 효과까지 탑재했다. 50ml 13인분.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장리운*

디올 뷰티 캡처 토날 하얏루 20년만의 안티에이징 연구 결과를 담은 제품. 얇은 타입인 스킨케어 튜브 디자인은 수분 부족과 주름 등이 일어나는 부위에 간편하면 사용도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윙크 옆은 텍스처 또한 부드럽고 빠르게 스며들어 실용적이다. 15ml 13인분용.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장리운*

러쉬 러브 퍼플 강한 시트러스와 진한 스파이시 꽃향기가 어우러진 로맨틱한 향. 티를 입시켜주며, 밝고 매력적이고 강렬한 향을 낸다. 공동 창립자 마크 콘스탄틴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물에 빠지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설명이 이해가간다. 100ml 20인분용. 문의 1644-2357. *_by 에디터 장리운*

파리파리 레퍼렉션 리퀴드 파운데이션 라디앙스 클래식 22호 뉴트럴 베이스와 핑스 광채감이 느껴지고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피부의 요철까지 자연스럽게 커버해줘 만족스러웠다. 특히 아시아인의 피스 라인에 맞춰 설계한 NBR+루비셀 2중 구조의 듀얼 에어 파우더 내장되어 있어 휴대성은 물론 선행한 피팅까지 자랑해 언제 어디서나 자루 손이 덜 걸린다. 30ml 50인분용. 문의 1566-5830. *_by 에디터 신정민*

AP 듀얼 리퍼 리프트 크림 최근 환경이 피부 고민이 지속되면 발나결한 최적의 피부 솔루션을 담은 크림. 특히 아토피성 피부 70년 이상 쌓인 피부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탄생한 AP에서 선보여 믿음이 갔다. 피부 특수 케어에서 유래한 초고분자 PDRN 성분과 엑소이이 들어 있어 꾸준히 사용했다면 단기간 강력한 피부 컨디션 개선 효과를 보였고, 탄력도가 7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50ml 41인분용.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신정민*

발롱 루미시티 SPF 50+ PA++++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부터 활력, 청정한 스위스 알프스산에서 추출한 스위스 피토 콤플렉스 덕분에 피부에 때 청정한 광채감을 선사해 자극받은 피부를 곧바로 진정시켜주는 것은 물론, 숨이 있던 피부 속 광채를 되살려준다.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듯한 느낌이 들어 피부가 편안하다. 30ml 31인분. 문의 070-4352-5203. *_by 에디터 신정민*

룩시앙 체리 블러쉬 세라미에 아무로 알티파요즈 프레스 미스트 피부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환경에는 미스트를 자주 뿌려 피부에 수분이 머무르지 않게 하는 편. 이 제품은 프로빙스 루비셀로 채워 블러싱과 체리 열매 추출물을 함유해 로맨틱한 플로럴 향과 함께 선행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리블리한 패키지는 덤 50ml 2인분용. 문의 02-2054-0500. *_by 에디터 윤자경*

달라 워터풀 톤업 선크림 퍼플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인 피부 톤 보정 기능을 갖춘 선크림.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로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땐 파운데이션 없이 이 제품 하나만으로 간단한 메이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피모은 이월리아 비건 인종 및 국내 자외선 테스트를 완료해 순하고 안전한 선크림을 제공한다. 50ml 32인분용. 문의 070-7714-8428. *_by 에디터 신정민*

베르사체 달린 퍼플 평소 상쾌함을 기원할 보랏빛 무드의 향을 좋아하는 편. 여기에 퍼플 컬러와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에디터의 마음을 자극한 보물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베르사체의 향을 시작으로 무겁지 않은 피피자의 은은한 진향이 최상의 보랏빛 무드를 선사한다. 마치 노을 지는 물가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향긋한 바람의 향기를 맡는 듯한 기분이 든다. 100ml 16인분. 문의 02-3453-5464. *_by 에디터 신정민*

닥터 비바라 스킨 하얏루로닉 세럼 토너로 피펫감을 청동 후 바로 사용하면, 피부가 다음 단계 스킨케어의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외선 차단과 보습 하얏루로닉이 최적인 농도로 농축되어 피부 표면과 깊은 속까지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한다. 30ml 45인분용. 문의 1644-4480. *_by 에디터 윤자경*

골데드보 보메 2024 라브 컬렉션 래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듀이 케이스 + 래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듀이 리플 활짝 핀 도란 피부가 펄펄 갈라지는 건조 피부에 메이크업은 시키지, 하지만 이 제품을 만나고 매일 촉촉하고 광채 나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밤이 빛나는 밤, 꽃이 물리쳐서 사랑을 수호하는 큐피드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특별함을 주며 소장 가치까지 더했다. 케이스 4인분용, 리플 8인분용.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민*



SHOWROOM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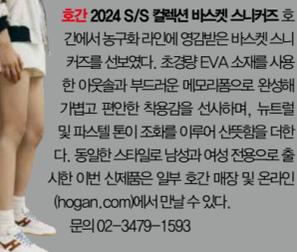
로저 비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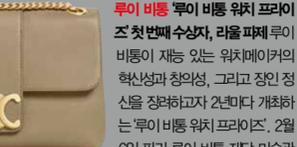
랑방블랑



루이 비통



호간



루이 비통

에서 열린 첫 번째 시상식의 수상자로 라울 피셔를 선정하고 시계의 정밀함을 상징하는 황색을 영감받은 나



랑방블랑

랑방블랑 2024 S/S 캠페인 공개 럭셔리 퍼포먼스 골드 웨어 브랜드 랑방블랑이 'Imagine, It's Real - Invisible Field'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한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미지의 필드를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가벼운 소재에 볼륨감이 돋보이는 아우터, 스커트, 팬츠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골드 웨어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문의 1800-5700

셀린느 빅투아르(Victoire) 백 셀린느가 에디 슬러언이 선보인 2024 서머 컬렉션의 마스트 해브 아이템, 빅투아르 백을 공개했다. 같이 조잡이 가능하고 미니 앙투어 틸 사이즈까지 갖춰주며 블랙 컬러, 트라코트 캔버스, 레오파드 프린트 등 다채로운 소재와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77-8841

로저 비비에 2024 뎀서 인더 캐슬 프렌치 럭셔리 브랜드 로저 비비에가 파리 오페라 프리아 발레리나 겸 예배우 마리옹 보르보와 함께한 2024 S/S 캠페인을 공개했다. 18세기 고상 시트드 상플라트뢰(Châteaux de Champlâtreux)를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로저 비비에 시그니처 아이템과 함께 넓은 세상 속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녀의 모습을 담았다. 문의 02-3479-6115



GRAFF



볼거리

포펠라토 2024 카테네 컬렉션 이탈리아 럭셔리 골드 웨어 브랜드 포펠라토가 하이 주얼리 버전의 카테네 컬렉션을 선보였다. 부드러운 곡선에 체인 디자인으로 완성한 카테네는 제품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아어링 등으로 구성했다. 감각적인 로즈 골드와 어우러진 다이아몬드가 은은하게 빛나는 이번 컬렉션은 포펠라토 정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탄생했다. 문의 02-3143-9486



우블로

반클리프 아펠 2024 레이디 아펠 발레 반클리프 아펠 에스트라오디네리 다이얼(Extraordinary Dials) 컬렉션의 새로운 레이디 아펠 발레 워치를 공개했다. 매종이 새롭게 개발한 에펠 기법으로 완성한 이번 신제품은 레이디 아펠 가스-누아제트(Lady Arpels Casse-Noisette)와 레이디 아펠 벨로루이 도르망(Lady Arpels Belle au Bois Dormant)로 선보이며, 다이얼 속 경의 무용수가 춤추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77-4128

그라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상품 오픈 그라프가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의 주얼리를 선보이고자 작년 12월 1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층에 상품 오픈했다. 하우스의 정인 정성과 뛰어난 소공인 기술을 신장하고 프랑스 디자이너 그라프 니콜라 로라를 콘셉트 디자인을 담당으며, 국내 상품 중 최초로 그린 컬러로 구성했다. 문의 02-2150-2320

JEWELRY WATCH



스위스퍼펙션

AP 듀얼 리퍼 리프트 크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모레퍼미아가 피부 연구의 정수를 담아 고상한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AP로 재탄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독자 개발 원료, 압도적 효능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갖춘 브랜드 첫 번째 뷰티 라인 'M.D.'의 듀얼 리퍼 리프트 크림을 공개했다. AP 특허 성분인 PDRN과 엑소이(EXOYN)를 담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단기간에 강력한



샤넬 뷰티

피부 보호 및 리프팅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80-023-5454

샤세이도 라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프라이어 샤세이도에서 마베,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SPF 25 PA++) 등 3중 기능을 다룬 스킨 글로우 프라이어를 출시한다. 끈적임이 적고 가벼운 사용감으로 메이크업 시뮬링 없이 부드럽

게 발리며, 촉촉하게 빛나는 글로우 텍스처로 하루 중 일整天이 있는 피부를 연출한다. 문의 080-564-7700

샤넬 뷰티 루주 알루르 벨벳 뉘 블랑슈 샤넬 뷰티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에 따라 변하는 밤의 무드를 담은 립스틱, 루주 알루르 벨벳 뉘 블랑슈(Lit Blancher)를 출시했다. 블랙 트링글 디테일의 화이트 케이스에 담긴 이번 신제품은 시아바타와 호호아 오일 성분이 들어 있어 부드럽고 편안한 텍스처를 선사하며, 가볍게 밀착되는 매트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스위스퍼펙션 RS-28 DUO 컬렉션 리퀴드 스쿠어 스쿠어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에서 다가오는 봄에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 RS-28 DUO 컬렉션을 제안한다. 스위스퍼펙션 베스텔라 RS-28 셀룰라 리주베이션 세럼과 RS-28 리주베이션 크림으로 구성된 RS-28 DUO는 브랜드 핵심 성분인 셀룰라 액티브 아이리시(CELLULAR IRISA®)를 함유해 피부에 최시함은 물론 탄력과 수분을 보충해주며 최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1644-4490

BEAUTY



RALPH LAUREN

랄프 로렌 컬렉션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
RALPHLAUREN.CO.KR